

건축계의 양극화 현실과 해소 방안

Comprehend of Polarization and Settlement for Architecture Field

focus

회원들을 만날 때 덕담으로 건네던 “얼마나 바쁘십니까?”란 인사말을 한지가 얼마나 됐는지 기억이 없다. 이젠 “사무소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기조차 면구스러울 정도로, 현실은 어둡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를 더욱 절망의 늪 속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사무소의 양극화 현상이다. 현재 설계사무소의 인원 구성을 보면 10인 미만 사무소가 87% 10인 이상 사무소 13%이며, 100인 이상은 1.3%이다. 그런데 이들이 차지하는 매출은 1조2,000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 4조원의 30.5%에 달하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을 부채질하는 것은 자구적 노력이 부족하고, 설계 중심의 한정된 제공 서비스로 인한 국제경쟁력 부족 등 내부 요인도 있지만 그보다는 법과 제도적인 점에서 기인하는 것이 대다수이다.

한국 주택의 56%가 아파트이고, 재건축·재개발방식 중 99%가 아파트이며, 연간 총 주택공급량의 73%가 아파트라는 것은 주택공급정책이 얼마나 획일화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통계로 소규모 건축사무소가 수주할 수 있는 업무량이 그만큼 감소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주택공급을 정부의 경제정책 조절수단으로 이용하는 획일적인 신도시개발, 재개발 및 재건축 위주의 고밀도 아파트 공급 정책을 중단하고, 저층 저밀도의 타운하우스, 소규모 블럭형 정비사업, 도시형 생활주택 등으로 주택 유형의 다양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개별사업단위의 난개발을 지양하고,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주변 환경과 연계되고,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형태를 창출하는 정책이 빠르게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절약형형 설계를 적용한 친환경주택이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 건축설계·건축재료·시공방법 등에 대한 상세매뉴얼을 만들고, 지원방안까지도 마련하여 친환경주택의 수요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녹색성장 정책을 시급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설계경기는 심사위원과 심사결과를 공개하고 신인건축사 참여기회를 확보하는 등 공정성을 강화시켜야 하며, 실적위주로 평가하는 PQ제도에 의한 발주보다 건축사 개인별 실적평가를 우선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편의를 위해 업체 수가 적은 전기 엔지니어링회사와 통합발주하게 함으로써 과다용역비를 지불해야하는 부작용도 개선시켜야 한다. 일괄입찰이나 BTL방식의 발주도 입찰금액이나 경제성과 유지관리 위주의 평가에서 설계의 내용 배점이 우선되도록 평가항목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제도개선에는 입찰이나 설계경기에서 로비 때문에 디자인 실력이 있는 소규모 사무소나 신인 건축사들이 좌절하는 불공정한 계임을 우리 건축계 스스로 자정해나감으로써 실력으로 인정받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 즉 공존의 법칙이 통하는 직업윤리가 정립 되어야만 비로써 양극화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공사에서 건축주와 무자격자의 함의에 의한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책임시공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소형건설업면허제도를 신설하여 건축사의 업역을 확장해나갈 것을 제안한다. 지금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물의 설계부터 멸실까지 건축물의 전 생애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건축물생애관리제도’를 건축사의 업무로 구체화시켜 시행하는 관련법을 정부입법(안)으로 건의한 상태이다. 이러한 정책 추진은 건축사업역의 다변화를 가져와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이는 부동산 업자에게 흑시나 하여 공짜 계획이나 해주고, 덤핑으로 인한 낮은 보수로 인하여 우수인력이 나가며, 설계의 질은 낮아지고, 경영난은 가중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김영수 / Kim,Young-soo, KIRA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

약력

- 서울산업대, 연세대, 명지대 (공학박사)
- 중앙대 대학원, 광운대 법무 대학원 강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 서울시, 인천시 건축위원
- 대한상시중재원 중재인
- 기술사, C.V.S, C.M.P